

[심층추적] '신동아 미네르바'는 누구인가

“기고문 게재에 대북 사업가 권씨 관여”

“박대성씨 구속 후 '박대성은 가짜'라며 공개질의한 아고라 논객 '담담당당'도 권씨”

이상훈, 김정우 기자

'인터넷 경제 대통령'이라 불렸던 '미네르바' 박대성(31)씨가 지난 1월 10일 허위 사실 유포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당시 언론은 미네르바의 정체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상황이었다. 철저하게 신분을 감추고 온라인에서만 활동해온 미네르바가 <신동아> 2008년 12월호에 장문의 기고문을 보낸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체포된 박씨는 "신동아에 기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때부터 미네르바 진위 논란이 시작됐다. 검찰은 여러 근거를 통해 "구속된 박씨가 진짜 미네르바"라고 발표했고, 이 때문에 "신동아가 미네르바를 사칭한 사람에게 속은 것 아닌가"하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신동아>측은 거듭되는 기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접촉했다는 미네르바의 신분에 대해 함구한 채 "2월호에서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1월 18일 발매된 <신동아> 2월호는 자신들의 잡지 12월호에 기고문을 썼다는 'K'씨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K씨는 이 인터뷰에서 "나를 포함한 7인이 진짜 미네르바이고, 구속된 박대성씨는 가짜"라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다. <신동아>와 K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구속된 박대성씨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셈이다. 구속된 박대성씨는 "신동아 12월호 미네르바 기고문을 본 적도 없다"고 했다. 그는 "신동아 12월호에 게재된 기고문이라는 글은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짜깁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대성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필자는 <신동아> 12월호의 미네르바 기고문(K씨 자신이 기고했다고 주장)과 검찰에 의해 대부분 박대성씨의 ID로 올린 것으로 확인된 '미네르바 글 모음집'의 내용을 비교해보았다. 현재 미네르바의 글 원본은 대부분 삭제된 상태다.

<신동아> 기고문의 도입부분부터 '글 모음집'의 글이 그대로 인용돼 있었다. '부동산 불꽃놀이는 지속된다(2008년 3월 23일)란 제목으로 '다음 아고라 미네르바 글 모음' 카페의 '미네르바 미게재 글 모음' 코너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었다.

도입 부분이 끝나고 곧바로 이어진 '리먼브러더스 인수 추진의 배경'이란 부분은 소항목 전체가 미네르바 글 모음집에 있는 '지옥의 묵시록1'(2008년 8월 25일)이란 글과 완전히 동일했다. 문법과 문장 흐름상 오프라인 활자매체에 맞게 조금 수정된 부분도 있었다.

또 '스태그 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라는 소항목에 들어 있는 글은 박대성씨가 쓴 '지옥의 묵시록2'에 있는 내용과 동일했다. 이처럼 1페이지 이상씩 동일한 부분이 있을 경우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필자가 찾은 것만 해도 신동아 기고문 20쪽 중에서 6쪽이 넘었다.

박대성씨의 글을 몇 줄씩 여기저기에서 가져온 경우도 적지 않게 발견됐다. 예를 들어 '3.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면면'이란 글의 도입부분 맨 마지막 단락의 경우 10여 줄(신동아 잡지 기준)은 미네르바가 10월 2일 쓴 '여우사냥'이란 글에서 일부 인용된 것이다. 바로 전 단락 5줄 가량은 9월 17일 쓴 '정말 정상이 아닌 나라군'이란 글에서 일부 인용된 것이다. 이 밖에도 <신동아> 12월호에서 박대성씨의 글 모음집에 있는 글을 인용한 곳을 군데군데서 확인할 수 있었다.

<신동아> 기고문 누가 썼을까?

<신동아>는 2009년 2월호 K씨 인터뷰 기사의 별도 박스기사에서 'K씨가 아고라에 썼다고 밝힌 주요 글 목록'을 제시했다.

목록의 일부는 미네르바 글 모음집에 있는 것도 있고, '미네르바 미계재 글들'이란 코너에 올라와 있는 글도 포함돼 있다. 또한 박대성씨가 검찰에서 자신이 쓰지 않았다고 지적한 글도 있다. <신동아> 12월호 기고문 기사도 K씨의 글 목록에 들어 있었다. 그밖에 리먼브러더스 파산 예측 등과 같은 미네르바의 명성을 날린 글과 미네르바가 절필 선언을 한 글도 K씨가 쓴 글이라며 포함돼 있다.

그렇다면 '미네르바'라 하여 체포 구속된 박대성씨가 "그 글은 내가 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신동아> 2008년 12월호 기고문은 누가 쓴 것이며, 문제의 그 기고문은 어떻게 <신동아>측에 전달됐을까?

<신동아>와 K씨 사이엔 제 3의 인물이 관계돼 있다. 박대성씨가 구속된 후 <신동아> 편집장은 <기자협회보>와의 인터뷰에서 "미네르바 기고문과 관련한 12월호 원고료는 제3자를 통해 미네르바에게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월간조선>은 2009년 2월호에 실린 박찬중 변호사의 인터뷰 말미에 "신동아에 기고한 인물은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사용한 제3의 인물이며, 신동아 측은 2008년 12월호의 '미네르바 원고료'는 다른 사람을 통해 지급했다고 밝혔지만, 그 원고료를 받은 사람이 '미네르바'의 이름으로 글을 쓴 사람"이란 제보 내용을 실은 바 있다.

취재과정에서 <신동아> 12월호 미네르바 기고문 게재와 관련해 대북사업가 권모씨라는 인물이 관여돼 있다는 사실을 접할 수 있었다. 권씨는 월간조선 기자에게 "내가 신동아 측에 그 늑은이(구속된 박대성씨가 아고라에 글을 올릴 때 자신을 지칭하며 자주 썼던 표현)를 소개해줬고, 원고료도 내가 신동아로부터 받아서 (미네르바에게) 전달해줬다"고 했다.

<신동아>는 2000년 12월호에서 미네르바와 접촉을 했다고만 표현을 했을 뿐 그를 진짜 만났는지, 이메일이나 전화로 접촉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남북정상회담 비선라인 구축한 대북 사업가

<신동아> 12월호 원고의 상당부분은 기존 미네르바 글을 재인용하거나 편집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원고료는 당연히 박대성씨에게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박대성씨는 <신동아>측에 기고한 적도 없고, 원고료를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런데 미네르바 논란에 왜 갑자기 대북사업가인 권씨의 이름이 등장하는 걸까.

1963년생인 그는 코트라(KOTRA)에서 아시아지역 공산국가를 담당하는 특수사업부 출신이다. 1994년 코트라에 사표를 내고 개인적으로 대북사업에 뛰어든 권씨는 광범위한 대북인맥을 구축하기 시작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안희정, 이해찬 등 정부 실세들의 대북 비밀접촉을 주선하는 등 대북통로 역할을 했다.

권씨와 <신동아> 편집장의 인연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동아> 편집장은 <주간동아> 편집장 시절인 2007년 4월 '참여정부 남북정상회담 막후추진 180일 일지'란 특종을 터뜨렸다. 노무현 정부의 아마추어적인 대북접근 실상을 공개한 이 기사는 대북전문가인 권씨의 도움으로 작성된 것이다. 권씨가 A4용지 500쪽이 넘는 남북 정상회담을 담은 비망록 자료를 편집장에게 전해줬다.

권씨는 포털 '다음'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개인 블로그를 가지고 있다. 그는 대북 사업 전문가답게 북한 관련 정보를 이곳에 많이 축적해 놓았다. 블로그 글 목록 중에는 외부 글을 스크랩해서 모아둔 코너가 따로 있는데, 2008년 10월 8일까지 289개의 외부 글이 스크랩되어 있었다. 글의 주제는 주로 북한과의 경험이나 경제관련 글이었다.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2008년 8월 중순부터 권씨의 블로그에 미네르바의 글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권씨는 8월 15일 처음 미네르바 글을 스크랩한 것을 기점으로 '지옥의 묵시록' '9월 위기설은 없다' '환율 폭등=11월 물가대란' '10년 후에 뵈겠습니다' 등 20여 편의 미네르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옮겨 놓았다.

권씨, '담담당당'이란 필명으로 아고라서 활동 중

이 가운데 9월 16일 미네르바가 쓴 '환율폭등=11월 물가대란'이란 글을 옮겨 오면서는 자신의 특별한 감상을 덧붙여 놓았다. 그는 이 덧붙임 글에서 미네르바의 경제에 촉을 극찬하고 있다.

"다음 아고라 경제방의 미네르바의 글의 정확도는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혹자는 '아마추어 고수'라고 부르지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그는 '프로'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정확도의 문제에서 그가 가진 정확성은 지난 반 년 이상 거의 한 차례도 누실이 없었거든요. 정확성 100%라는 것이 바로 실물경제를 읽는 프로라는 걸 의미합니다...중략...한국의 오늘을 너무 냉혹하다 싶을 정도로 정확하게 들여다본 미네르바 글을 따 붙입니다." (이하 생략)

취재 결과 권씨는 개인 블로그 뿐 아니라,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담담당당'이란 필명으로 글을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필명으로 다음 아고라에 글이 올라오기 시작한 시점은 <신동아> 12월호가 발간된 무렵인 2008년 11월 20일부터다.

그의 글 중에 일본 자본의 한국 침탈 예견, 미네르바 글에 등장하는 '노란 토끼'가 환투기 세력이라는 주장, 중국 경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 남북관계에 대한 의견,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 비판 등에서 <신동아> 2월호의 인터뷰 내용과 유사한 주장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권씨로 밝혀진 '담담당당'은 자신이 극찬했던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구속된 후 "그가 절대로 미네르바가 아니다"는 주장을 담은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1월 17일 쓴 글에서 '담담당당'은 미네르바가 쓴 글 중에 "하지 마라니까 내부 참고용으로 만들어 논 걸 잡지사에 가져다가 팔아먹는 놈이 있지 않나. 들쭉시는 놈이 있지 않나. 에이고"라는 부분을 문제삼아 박대성씨를 공격했다.

박대성씨 구속 후 공개질문

'담담당당'은 1월 30일 '필화와 설화'라는 제목의 글을 4차례 연거푸 올리며 24개 항목에 대해 박대성씨에게 공개질문을 던졌다. 미네르바의 글을 탐독하지 않거나, 정밀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던지기 어려운 질문들이었다.

질문은 박대성씨가 글을 쓰기 위한 정보수집 과정에서부터 외국어 실력 여부, 신분제에 대한 해명, '노란 토끼'의 의미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내용이었다. 그는 질문 마지막에 "풀려난 후에 귀하가 썼다고 주장하는 280여편의 글과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다루었던 사안과 배경, 그 직전과 직후의 상황과 변화 등 일련의 진행과정 등에 대한 '종합적 공개토의'에 응할 의향이 있는가"하는 말로 공개질의를 끝마쳤다.

왜 '담담당당'이 박대성씨에게 공개질문을 던졌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면 당신은 진짜 미네르바가 아니다"란 것이 질문의 요지는 확실했다.

'담담당당'은 <신동아> 2월호가 발매(1월 18일) 되기 하루 전에 박대성씨에게 공개질의를 했고, 그가 가짜라는 주장을 폈다. 구속된 박대성씨가 <신동아> 12월호 기고문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니, 진짜 미네르바가 따로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을까.

구속된 박대성씨는 2008년 7월 30일과 12월 29일 올린 글 때문에 검찰에 구속됐다. 그동안 미네르바란 이름으로 인터넷에 올린 글의 영향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박씨가 구속을 당한 것이다. K씨는 <신동아> 2월호에서 박씨가 가짜라고 주장하며 내세운 근거는 다음과 같다.

"미네르바는 한 명이 아니라, 금융계 인사들로 구성된 7인 그룹이다. 박대성씨가 자신들이 사용하는 IP 주소(인터넷상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고유주소)를 조작해서 글을 올렸을 것이다. 7인 그룹 중 연락이 끊긴 한 사람이 박대성씨를 시켜서 글을 올렸을 수도 있다."

K씨는 논란이 된 미네르바의 글 중에 박대성씨의 직접적인 구속사유가 된 두 건의 글(2008년 7월 30일과 12월 29일 글) 외에는 모두 자신들이 쓴 것이라는 전제하에 인터뷰를 했다. K씨는 미네르바의 필명으로 인터넷에 올릴 때 표기된 IP 주소는 자신들이 '공유'했던 것이며, "구속된 박대성씨가 자신들의 IP를 조작해서 글을 올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네르바 7인 멤버 중 현재 연락이 두절된 회원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박대성씨를 시켜서 글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박씨의 IP · ID · 로그인 기록 모두 미네르바와 일치"

다음 아고라 토론방은 여러 명이 동일한 필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다. 누구나 '미네르바'란 필명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독자들은 IP 주소를 기억해 미네르바의 진위를 구분했다.

누군가 글을 올리면 게시물엔 글쓴이의 IP 주소가 자동으로 기록된다. 통상적으로 한 IP는 한 대의 고유한 컴퓨터를 가리킨다. 미네르바의 글은 211.49.XXX.104와 211.178.XXX.189라는 IP 주소를 통해 등록됐다. 211.49.XXX.104라는 주소는 2008년 10월 24일 이전까지 사용했으며, 그 후로는 줄곧 211.178.XXX.189라는 주소를 사용해왔다.

K씨는 멤버들이 두 개의 IP 주소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글을 올렸다고 했지만, 미네르바는 IP 주소가 한 차례 변경된 후, 계속 하나의 IP를 사용해왔다. 현재 미네르바의 글은 '미네르바 글 모음집'이란 이름으로 244편이 인터넷에 유포돼 있다.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가운데 세 편의 글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신이 썼다고 진술했다. 박씨가 자신이 썼다고 말한 240여 편의 글 중 박씨의 구속사유가 된 2개의 글을 포함, 그동안 화제가 됐던 미네르바의 모든 글이 포함돼 있다(신동아 12월호 기고문은 제외).

반면 K씨는 자신을 포함 7명의 그룹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글들을 썼다고 주장했고, 다만 박씨의 구속 사유가 된 글 두 편은 자신들이 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같은 글을 두고 둘 중 하나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미네르바 글 모음에 있는 244개의 글은 누가 쓴 것일까. 검찰 수사기록에 의하면 검찰이 박대성씨를 체포하기 전부터 그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과정이 날짜별로 자세히 기록돼 있다.

검찰은 2008년 12월 29일 '다음' 토론방에 미네르바의 이름으로 '대정부 긴급공문 발송-1보'라는 글이 올라오자 즉시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글이 올라온 다음날 '(주)다음커뮤니케이션'에 미네르바의 신원 파악을 요청했고, '다음'측은 미네르바의 신원과 그가 2001년 10월 포털 '다음'에 가입한 사실을 검찰에 통지했다.

검찰은 미네르바의 IP가 할당된 곳의 주소, 각종 통신기록을 하나씩 확인해 나갔다. 이후 미네르바가 박대성이라고 확인한 검찰은 올 1월 7일 서울 창천동에 사는 박대성씨를 긴급 체포했다.

다음(Daum), 박대성씨를 진짜 미네르바로 판단

검찰 수사기록에는 미네르바의 글이 박씨의 창천동 집에 있는 컴퓨터 IP 주소에서 올라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검찰은 여러 경로를 통해 박대성씨의 IP 주소로 올려진 글들이 박씨의 '다음' ID로 올린 것이란 사실을 과학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또 박씨의 로그인 기록과 미네르바란 필명으로 글을 쓴 시기도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박씨를 기소하면서 "박씨가 IP 조작을 하거나, 전자우편, 전화통화 내역 등에서 외부의 다른 사람 글을 받아서 올린 흔적이 없다"고 밝혔다.

K씨는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박대성씨가 IP를 조작해서 글을 올렸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검찰과 박대성씨의 변호인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미네르바의 글은 모두 박씨가 살고 있는 창천동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올라간 사실을 확인했다.

포털 '다음'과 인터넷통신업체인 'SK브로드밴드' 측도 수사과정에서 미네르바의 회원 가입 정보와 통신자료 기록 등을 검찰에 넘겨주었다. 즉 IP 조작 여부를 떠나 논란이 된 글은 모두 박씨의 컴퓨터에서 박씨의 ID로 접속한 후 올라왔음을 확인해 준 것이다.

포털 '다음'은 2008년 10월 박대성씨에게 아고라에 '미네르바 코너'를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아고라 팀장인 김모씨는 10월 28일 박씨에게 보낸 메일에서 "미네르바님의 글을 좀 더 쉽게 찾아보고 싶다는 네티즌들의 요청이 계속 쇄도되고(하고) 있다"며 "미네르바님의 토론글 목록을 아고라 페이지에 별도 소개하겠다"는 제안과 함께, 공지사항 아래 위치에 배너를 추가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다음' 홍보팀을 통해 전달된 취재요청 메일들도 모두 박씨의 한메일 주소로 전달됐다. '다음'이 박씨에게 메일을 보낸 것은 곧 박씨를 미네르바로 판단했다는 의미다.

K씨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박씨가 7인 그룹의 IP를 조작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박씨의 IP를 조작해서 사용했어야 한다. 박씨의 변호인인 박찬종 전 의원은 "설사 외부에서 누군가 박대성씨의 IP를 조작했다 해도 ID와 패스워드를 모르면 글을 올릴 수 없

다"면서 "다음 회원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ID, 패스워드 세 가지가 있어야 하나의 ID가 주어지고 글을 올릴 권한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박대성씨가 자기 ID와 패스워드를 7인 그룹에 알려줬거나 혹은 7인 그룹이 쓴 글을 누군가 인편 등으로 박대성씨에게 직접 전해주지 않았다면, 박씨 IP로 글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니면 누군가 해킹을 통해 박대성씨의 ID와 패스워드를 알아냈다는 소리가 된다. 그리고 같은 IP로 올라온 글 중에서 유독 구속사유가 된 두 개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자기들이 올렸더니, K씨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박찬종 변호사의 보좌역인 김승민씨는 "신동아가 K씨가 진짜 미네르바라는 것을 알아내려는 의지가 있다면 박씨의 IP중 가려진 부분(중간에 XXX라고 표기한 부분)이 무엇인지 K씨에게 밝히라고 하거나, K씨가 미네르바란 필명으로 글을 올릴 때 사용한 ID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간단히 해결되는데, 이런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IP 조작이 아니라 해킹을 해야"

정지은 '다음' 기업커뮤니케이션팀장은 <신동아>가 제기한 IP 조작 의혹에 대해 "IP 조작 방법으로는 주소 자체를 다르게 보이는 방법(IP 스푸핑)과 원격접속이나 해킹을 통해 직접 연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면서 "IP 스푸핑 기술은 아고라 토론방과 같은 게시판에선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조작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자전산학부의 문수복 교수는 직접 아고라 게시판에서 글을 올려보는 실험을 한 후, "여러 가지 환경적 요건이 우연적으로 일치할 때 해킹 등의 방법을 통해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상식적'인 한도 내에선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정수환 숭실대 정보통신전자공학부 교수는 "IP 조작은 어느 수준 이상의 네트워크 지식을 갖고 있다면 가능하지만, 조건에 제약이 꽤 많다"며 이렇게 말했다.

"(7인의 미네르바에 대해) 그분들이 IP 조작을 위한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했는지, 아니면 오픈된 소스나 해킹 사이트를 통해 프로그램을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트워크와 보안은 변수가 많은 영역입니다. IP 조작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쉽게 IP 조작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IT 쪽으로 상당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박대성씨의 집의 컴퓨터로 IP를 할당하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 'SK브로드밴드'는 'IP를 빼앗겼다'는 K씨의 주장에 대해 "대응할 가치도 없는 말"이라고 했고, "IP 주소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K씨의 주장에 대해선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취재에 응한 IT 전문가들은 "게시판에 통상적인 글 하나 올리는데, 7명이 IP를 조작해 가며 번거롭게 올리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었다.

포털 사이트 '다음'은 토론방에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지만 '익명' 사이트는 아니다. 이용자가 사이트에 가입하면 '다음' 측은 여러 인증과정을 통해 이름·생년월일·성

별.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다음'은 서비스 이용의 혼선 방지, 불법적 사용자에 대한 관련기관의 수사협조를 위해 회원 탈퇴 후 1년까지 이 정보들을 보존한다.

박대성씨는 'h'로 시작하는 ID를 사용했다.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아고라 토론방에 글을 올릴 때도 같은 ID였다. 미네르바의 글 원본은 대부분 삭제됐지만, 수없이 퍼진 복사본의 링크는 모두 박대성씨의 ID로 연결된다.

김승민(박찬종 전 의원 보좌관)씨는 필자 앞에서 직접 박대성씨의 ID로 로그인한 화면을 보여주며 미네르바가 체포된 박씨임을 확인해줬다. 그의 계정으로 아고라에 접속하자 미네르바가 체포되기 직전에 썼던 "속상하다...그리고 사과 드린다"와 "마지막에 기댈 것은 결국 희망입니다"란 제목의 글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박씨 "앞으로 10~15년 인터넷에 글 안 쓰겠다"

박씨의 메일함엔 여러 언론사에서 '다음' 홍보팀을 통해 보내온 취재요청 메일들이 쌓여 있었다. 박씨 ID의 '다음' 로그인 이용기록은 미네르바의 활동과 정확히 일치한다. <신동아> 2월호는 미네르바의 ID가 가입 당시부터 박씨의 개인정보가 기재됐다는 것에 대해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라고 표현했다.

현재 검찰은 서버에 기록된 IP 대조를 마친 상태다. 모두 아고라에 게재된 IP와 일치했으며, 이는 곧 미네르바(박대성)의 IP가 조작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K씨와 그의 팀들은 2007년 12월부터 미네르바란 필명으로 500여편의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다음' 아고라가 IP 주소를 글에 함께 게재한 시점은 2008년 7월부터다. 그 전까진 게시판에서 글쓴이의 IP 주소 자체를 볼 수 없었다. K씨는 자신들이 IP 공유를 시작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김승민씨는 "7인의 미네르바들은 게시물에 IP 주소가 게재되기 이전부터 미리 조작을 통해 IP를 공유했다는 주장"이라며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IP까지 조작하는 이유는 범죄의 목적밖에 없다"고 했다. 김승민씨의 말이다.

"박대성씨 구속 이후에 기존의 미네르바 IP로 올라온 글은 한 건도 없다. 7인 그룹이 원거리 IP 조정에 능숙하고, 미네르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온 지난 1년 동안 IP 조정을 해서 글을 올렸을텐데 이제 와서 못할 이유가 뭐가 있나. K씨 주장이 맞는다면 자기네들이 만든 유명세에 편승해 단 두 건의 글을 올린 박대성씨는 지금 구속됐는데, 신분을 밝히지는 못할 망정 도리상 그 정도는 해주어서 시비를 명확히 가려줘야 하지 않겠나."

구속된 박대성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내 뜻이 와전되는 바람에 예상치 못한 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차후에 공개적인 해명과 사과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앞으로 10년에서 15년 동안은 인터넷에서 글을 쓰지 않겠다"고 했다.